한국품질경영학회

회원사 동향

공공부문

2019.05

한국품질경영학회
KSQM 1965

Index

1. 부산항만공사 ····· 1

2. 서울교통공사 ····· 1

3. 울산항만공사 ····· 2

4. 한국가스공사 ····· 3

5. 한국남부발전 ····· 4

6. 한국수력원자력㈜ ····· 4

7. 한국지역난방공사 ····· 5

8. 한국토지주택공사 ····· 6

9. 한전KDN㈜ ····· 6

10. 한전KPS㈜ ····· 7

1.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BPA), 국제항만협회 총회서 최우수상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31차 국제항만협회(IAPH) 세계총회에서 '2019 IAPH 지속 가능 성장 어워드' 지역사회공헌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IAPH는 5개 분야(유연한 항만 인프라 구축, 기후와 에너지, 지역사회 공헌, 안전과 보안, `항만 거버넌스와 윤리)에 걸쳐 62개의 지속 가능 성장 프로젝트를 평가했다.

BPA는 북항 재개발지역 내 항만 유휴부지에 수영장, 야영장, 족욕장 등을 운영해 항만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최우수항만에 선정됐다. BPA는 지난 8일 '지속 가능 항만 성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 세션 패널토론에 아시아 대표 항만으로 참여해 부산항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출처: 국제신문, '부산항만공사(BPA), 국제항만협회 총회서 최우수상', 2019/05/13

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90514.22018004861

- BPA, 제22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공기업 부문 대상수상

부산항만공사는 지난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회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신규 화물유치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항 이래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2,166만TEU를 달성한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또 부산항 신항 욕망산 주간선도로 개통을 통한 신항 물류흐름 개선, 항만내 복잡·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부산항 조성, 항만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깨끗한 친환경항만구축 노력 등 부산항을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시민일보, 'BPA, 제22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공기업 부문 대상수상', 2019/05/19

링크: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155

2.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세계 최초 무장애 전동차 만든다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세계 최초로 전동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취득을 위해 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전동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 장소로 이동, 접근, 이용 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BF 인증 신청을 위해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전동차를 확인하고 도면을 검토하는 등 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따라 올해 제작하는 2·3호선 신조 전동차 196량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기준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교통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 구조를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서울교통공사, 세계 최초 무장애 전동차 만든다', 2019/05/09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9000318

- 서울교통공사 "구의역 사고 2년만 지하철 안전문 고장 68% 감소"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가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2016년과 비교해 68%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이후 승강장 안전문 안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2인1조 작업의 실현을 위해 정비직원을 146명에서 381명으로 늘렸고, 안전문 정비 작업도 직영화함과 동시에 정비 직원은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승객 끼임을 방지하는 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는 레이저스캐너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레이저스캐너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선로 측이 아닌 승강장에서 점검과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267개 역 1만9천24개의 센서를 교체했다.

공사는 장애물검지센서 이상을 통합 관리할 모니터링 시스템을 10개 역에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구의역 사고 2년만 지하철 안전문 고장 68% 감소’”, 2019/05/21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24100004?input=1195m

3.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2년 연속 '우수'

울산항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 주기적인 민·관 합동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협업 체계 구축 ▲ 유관기관 및 단체 협업 조직인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운영을 통한 정박지 해저 장애물 제거 ▲ 위험물 부두 입항 정부 책자 마련 ▲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등 사업을 발굴·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4개 항만공사 중 우수 기관에 뽑힌 것은 울산항만공사가 유일하다.

출처: 연합뉴스, “울산항만공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2년 연속 '우수'”, 2019/05/03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104100057?input=1195m

- 울산항만공사, 자동차화물 처리량 증가로 최고 처리실적 달성

울산항만공사는 4월 울산항 6부두에서 처리한 자동차화물이 총 24만8천 톤(약 21,000여대)으로 월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UPA는 해양수산부의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 운송 허용’ 이후 2016년 12월에 UPA·울산광역시·화주·부두운영사 등이 협업을 통해 최초로 자동차화물을 처리했다. 2018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한 울산항 내 운송규제 해소와 특허보세구역 신규지정으로 2017년 71만 톤에서 지난해 134만 톤으로 89.7% 처리물량이 증가했다.

UPA는 올 1분기에는 52만 톤의 자동차화물과 8만 톤가량의 중장비 화물을 처리해 6부두에서 전년 대비 42.4% 증가한 250만 톤가량의 자동차 화물을 올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화주인 현대자동차의 항내 대체부두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항운노조와 부두운영사의 신규일자리를 창출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브릿지경제, ‘울산항만공사, 자동차화물 처리량 증가로 최고 처리실적 달성’, 2019/05/24

링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524010007785

- 울산항만공사, 노후 디젤예선 친환경 LNG선 전환사업 국내 최초 추진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만 내 노후 디젤예선을 친환경 LNG 연료추진선으로 전환하는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선박 건조 및 운항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선박 지원사업, LNG 연료 추진선 발주 등 LNG선 건조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무역항내에서 운항빈도가 잦고 순간 출력이 높은 예선에 대한 친환경 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항 내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LNG선박 연관산업 육성으로 침체한 조선업황 회복에 일조하고자 자체적으로 디젤노후 예선의 LNG 추진선 전환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올해 울산항이 지원대상 항만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항만공사는 이달 초 해양수산부와 위탁계약을 체결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1차년도 사업에 예선 1척을 LNG연료 추진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 24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10일부터 40일간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및 평가를 거쳐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7월부터 LNG 예선 건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는 2021년 상반기에 LNG 추진예선이 국내최초로 상업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LNG 청항선, LNG 예선 도입 확산 등으로 LNG 연관사업 활성화와 항만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브릿지경제, “울산항만공사, 노후 디젤예선 친환경 LNG선 전환사업 국내 최초 추진”, 2019/05/12

링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512010003407

4.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분야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가스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7년 ‘우수’ 등급에 이어, 이번에는 ▲태풍 등 대형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 ▲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연계 안전마을 조성사업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그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자체·소방서·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시설·장비 설치 지원, 대국민 가스화재 체험 기회 제공 등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특히, 산불재난을 예방하고자 산림과 인접한 가스 시설물에 대한 산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방재설비와 24시간 감시용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설비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 7개 유관기관과 산불재난 합동훈련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가스 시설물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출처: 녹색경제신문,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분야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2019/05/07

링크: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69

5. 한국남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국내 전력공기업 최초 美 가스복합발전사업 진출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 1085MW급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미국 가스복합발전사업 진출은 국내 전력공기업 중 최초인데다 선진시장에의 첫 행보인지라 그 의미를 더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 Niles(나일즈) 복합발전 사업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계약 서명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일즈 복합발전사업은 미국 북동부 오대호 인근 미시건주 카스(Cass) 카운티에 1,085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약 10억5000만 달러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준공돼 35년간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연평균 약 5억 달러 매출수익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로 보일러, 변압기 등 국산 기자재 수출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며, 잠재력 높은 선진시장으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성장가치도 크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남부발전, 국내 전력공기업 최초 美 가스복합발전사업 진출”, 2019/05/08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461698

6.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협력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9일 4박 6일 일정으로 18개 협력 중소기업과 시장개척단을 발족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났다. 시장개척단은 마드리드와 산탄데르 등지를 방문해 원전과 화력,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기자재 시장 신규 수출 판로 개척 활동을 펼친다.

한수원이 국내 29개 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수출전담법인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KNP)와 기획한 스페인 시장개척단은 원전 기자재 공급사,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동반성장 협의회 회원사 등이 참여했다.

현지 EPC사의 요청에 의해 참여한 기업이 7개 기업으로 높은 상호협력 가능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개척단은 한-스페인 B2B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스페인원자력협회와 원전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우수기자재와 기술을 홍보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 원전 운영 국이다. 경수로의 경우 국내 원전과 노형이 유사하고 세계적인 대형 EPC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분야에서 진입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스페인 EPC사들은 중남미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NSP통신, ‘한국수력원자력·협력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2019/05/20

링크: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59767

- 한국수력원자력, ESG 채권 수요예측 흥행…증액 발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원화 소셜 본드(Social Bond) 발행을 위해 지난 28일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공모채를 모집했다.

소셜 본드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수원은 모집 채권이 공공의 이익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일괄 신고 등록 후 기존의 입찰 대신 투명하게 공정 가격이 형성되는 수요예측 방식으로 진행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채권 발행사 중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한수원이 최초다. 5년과 20년, 30년 합쳐 당초 1500억 모집 금액의 약 4배에 달하는 5600억의 수요가 몰렸다. 이에 한수원은 3000억까지 증액 발행할 예정이다.

소셜 본드라는 자금의 성격과 투명한 수요예측 제도를 통해 모집했던 점이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시장 관계자들의 선호도를 높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오피니언뉴스, '한국수력원자력, ESG 채권 수요예측 흥행…증액 발행', 2019/05/29

링크: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02

7.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신기술 연구개발 강화로 미래에너지 산업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미활용 열과 지역난방을 연계한 '차세대 지역냉난방 플랫폼 개발' 실증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 연구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활용열과 지역난방을 연계한 사물인터넷 융복합 도심형 열네트워크 모델 개발' 과제로,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역난방기술(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증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활용열 연계를 위한 스마트 변온소 개발 및 구축, 연료전지 배열 또는 지역난방 열원을 활용한 저온구동 발전기(ORC)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용화될 경우 국가차원의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난방의 효율적인 실증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12월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을에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관련 시험 장치를 구비해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방 운영함으로써 기술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신기술 연구개발 강화로 미래에너지 산업 선도', 2019/05/21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21000130

8.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기업 최고의 '굿 컴퍼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도 굿 컴퍼니 지수(GCI) 공기업 부문에서는 각축전이 벌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합계 74.547점을 얻어 공기업 부문에서 최고의 굿 컴퍼니로 선정됐다. 2위와 3.5점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여유 있게 1위에 올랐다. LH를 공기업 부문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 건 '사회적 가치' 항목이었고 이는 이번 조사 대상 119개 공기업 중 가장 높다.

LH는 실제 사회공헌활동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 1회꼴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지는 LH는 공사가 위치한 진주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고 있다. 진주시 관내 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기증,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옐로 카펫'설치, '어버이날 효(孝) 사랑 큰 잔치' 개최, '홀몸어르신 살피미' 등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출처: 시사저널, "공기업 최고의 '굿 컴퍼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5/30

링크: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223

9. 한전KDN㈜

- 한전KDN,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5회째 인증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SQ, Service Quality Certification) 인증을 5회 연속 획득, 14일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로 한전KDN은 2005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5회째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KDN은 ▲ISO9001:2015 인증 전환 획득 ▲ISO/IEC 20000.27001 동시 획득 ▲원격검침시스템(AMI) 검침성공률과 안정성 향상 ▲모바일 기반의 현장업무시스템을 통한 전력계통 IT설비 기술지원 적기처리 등 탄탄한 서비스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제품개발과 기술력 향상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출처: 전기신문, "한전KDN,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5회째 인증", 2019/05/14

링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57821923178962002

- 한전KDN, 한국동서발전과 스마트발전소 구축 위한 무선 IoT망 실증

한전KDN과 한국동서발전은 5월 21일 전자부품연구원, 쎈불과 함께 '자가무선망 및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한 발전설비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과제'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당진화력본부 9호기 전자제어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해 발전설비의 상태를 감시·진단하고 동서발전의 자가무선망과 IoT기술을 이용해 서버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으로 고, 저압 모터에 IoT 센서를 부착하고 동서발전 고유의 재난, 안전 통신망과 중계장치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분석, 보고하는 상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있다.

이를 통해 발전 설비의 감시·진단 범위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설비운영, 점검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한전KDN, 한국동서발전과 스마트발전소 구축 위한 무선 IoT망 실증', 2019/05/21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8

10. 한전KPS㈜

- 한전KPS, 안전·품질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전KPS가 안전과 품질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인정받아 업계 선도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전KPS(사장 김범년)은 5월 2일 본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획득과 관련해 수여식을 가졌다.

한전KPS는 최근 강화된 정부 안전강화 정책을 조기에 이행하고,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지난 2월 재난안전실을 사장직속으로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사업소에는 35개 안전파트 조직을 신설해 안전조직도 보강했다

이와 함께 'Safety is the Best Value'란 안전슬로건 아래 본사 로비에 안전홍보관을 설치해 전 임직원에게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체 구성한 전담반을 통해 회사에 최적화된 안전·품질경영시스템 구축과 매뉴얼을 개발했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한전KPS, 안전·품질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2019/05/02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7